



## “2003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성황리에 폐막

진흥회(회장:김준철)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기관에서 후원한 전력 IT기기 국제전시회인 『2003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2003)』이 지난 11월 4일(화)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화려하게 개막되어 외국 바이어 500여명을 포함한 1만여명의 관람객과 2억불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둔 가운데 11월7일(금)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SIEF 2003은 국내 전기산업의 수출촉진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94년 제1회 전시회를 개최한 이후 전기업체의 홍보매체로 꾸준히 성장, 발전하여 규모나 질적 수준에서 국제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난 11. 4(화) ~ 11. 7(금)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차세대유망전시회로 지정하고 해외초청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진흥회에서는 “Special Buyer’s Program”을 추진하여 25개국에서 160여명의 전력회사 관계자 및 바이어를 초청하고 행사 기간동안 우리 업체와 수출상담 및 공장방문 등의 수출활동을 전개하였다.

SIEF2003에는 LG산전, 일진전기 등 국내 중전기 종합메이커와 함께 해외 업체인 MARECHAL(프랑스), TaAn(대만), HENIKWON(말레이시아) 등 13개국 124개사에서 참가하였으며 특히, 대만에서는 7개업체가 공동으로 국가관을 구성하여 전시기간동안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Global Market을 주도하고 있는 첨단 IT기술과 전통전력산업이 융화된 디지털 제품 및 신소재 부품과 소형, 경량화된 제품이 대거 출품되어 전력IT산업의 기술동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부대행사로는 전기산업 수출유공자 포상 및 기념리셉션, 일본전력회사 구매관계자 초청 수출 상담회 및 세미나, 참가업체 신기술 발표회, 전기시험위원회 심포지움 등이 준비되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한편, 진흥회는 내년도 “제9회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2004 & KOREA POWER GEN 2004)을 세계적인 Mass Media 그룹인 PennWell과 공동으로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11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며, 특히 전시품목을 송배전분야에서 발전분야까지 규모를 확대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처: 사업지원실 통상전시팀)

## 전기산업 수출유공자 시상식 거행

진흥회는 SIEF 2003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하기 위하여 개최된 기념식에서 전기산업의 수출산업화에 공로가 큰 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출유공자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영예의 대통령표창에는 ▲이이주 (주)삼동 대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국무총리 표창에는 송희석(효성 수석연구원), 심세규(삼화EOCR 기술이사)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에는 김수용(현대중공업 차장), 황경모(대한트랜스 전무이사), 김세연(일진전기 대리), 신동우(진광이앤씨 대리), 오금록(한국전기안전공사 과장) ▲중소기업청장 표창에는 박현욱(성원전기 상무이사), 이종성(남성기업사 사장), 김남열(증원전기 차장), 오성진(이화전기 책임연구원), 홍대희(풍산전기 실장) ▲진흥회장 표창에는 조익만(대륙 부장), 유형렬(이화전기 차장), 박동용(피앤씨테크 차장), 김지환(동아베스텍 부장), 이상호(시영중전기 과장), 허식(KS일렉트로 공장장), 서재범(젤파워 과장), 김민수(래치원 주임) 등이 각각 수상했다.

(문의처: 사업지원실 통상전시팀)

## “중국 중전기 시장개척단 파견”

진흥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중소기업청 및 KOTRA 후원으로 「중국 중전기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다.

『중국 중전기 시장개척단』(단장 김준철)은 국내 전기기기 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개척, 전기산업 수출시장조사 및 ‘2004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홍보 등의 목적으로 진흥회와 국내 중전기 제조업체 1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현지 전기관련 업체와 수출상담회를 갖고, 중국 서부대개발 현장 답사 및 유관기관 방문 등의 활동을 펼쳤다.

금번 시장개척단은 북경, 중경, 성도 등 3개 지역에서의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국 전력기자재 시장의 현주소 및 동향 파악과 더불어 서안지역 현장답사를 통한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른 우리 중전기 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써 거대 시장에 대한 국내 중전기 제품의 대외인지도 제고 및 수출활성화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진흥회에서는 이번 방문기간 중에 업무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CCPIT(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기계행업분회)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현황과 향후 업무협의를 비롯한 SIEF2004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문의: 사업지원실 통상전시팀)